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

행안부,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도내 유일 우수기관 선정

임실군이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예방사업의 선진모델을 선보이며, 전국적인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전국의 17개 시·도, 172개 시·군·구에서 지난해 추진한 '2017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광양시, 서귀포시, 함양군과 함께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임실군이 재해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군민 중심의 선진적인 행정력을 과시했다.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해예방사업의 문제점 개선과 우수사례의 발굴·전파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 예산절감 및 설계·시공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지난 해 재해예방사업 추진 시 조기발주 추진과 재해예방사업장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 실시, 급경사지 사업비 선 투입, 소화전 현장 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해예방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박진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조기추진단을 구성, 조기집행에 적극 나서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조기추진단을 통해 군은 각종 행정절차이행과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관리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왔다.

군은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5월 방재의 날 행사 시 '행정안전부 우수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게 됐다.

또한 이번 추진실태 점검결과와 2018년 조기발주 및 조기완공 실적

향상하여 지원하는 국비 인센티브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우수기관 선정에 힘입어 군은 올해에도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재해예방사업 11개 지구에 135억 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지구는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신속히 실시하고, 계속지구는 6월말 우기철전까지 주요 구조물을 완료하기 위해 2월말까지 사업발주를 완료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통한 문제점 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로 재해예방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재해위험요소 해소에 적극 노력해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강천산군립공원 전국사진 공모전

특색 있는 풍경사진 주제로 누구나 참여 가능

4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순창강천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 장의 사진으로 전국에 알리는 사진공모전이 열린다.

순창군이 주최하고 순창산동우회가 주관하는 '2018 강천산군립공원 전국사진 공모전'은 강천산의 사계절 변화에 따른 자연경관을 활용한 스토리사진 및 순창의 특색 있는 풍경사진을 주제로 지역, 연령, 자격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작품 출품료 없이 개인 1인당 5점 이내로 제출할 수 있고 시상규모는 대상 1점에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2점에 각 200만원, 우수상 3점에 각 상금 100만원과 특선, 입선 등을 포함해 총

96점을 선정 할 계획으로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순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고 개별통지 한다.

공모기간은 2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이며 접수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사진동호인들 뿐만 아니라 사진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많은 참여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은 순창의 관광명소를 알리는 관광홍보 자료로 활용 한다"고 말했다.

강천산 군립공원 전국 사진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 사진동우회 전화(063-653-2501)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 아리

남원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확대

남원시는 택시 운전자들의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카드결제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향상 및 승객 편의를 돕기 위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를 확대 지원한다.

작년까지 대당 월 1만원 한도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를 지원했으나 승객의 편의와 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내 택시 385대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100% 지원한다.

남원시는 택시이용 승객의 요금 결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유 없이 카드결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가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 및 보조금 중단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올해부터 대당 5,500원씩 다시 지원하기로 하여 이용 승객의 편의 증대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리산 천년송 당산산신제 열어

지리산의 안녕과 마을 주민들의 풍년을 기원하는 '지리산 천년송 당산산신제'가 2월 25일 11시에 마을주민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하여 구름도 쉬어간다는 남원시 산내면 외운(臥雲)마을에서 개최된다.

지리산 천년송 문화보존회와 외운마을 주민 주관으로 열린 이번 당산제는 산내농악단의 터울림 공연을 시작으로 지리산의 풍년과 주민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제례의식이 행해지고 이어서 가족 소원빌기 행사로 소지(魂)한지를 태워서 정화하고 기원하는 의식도 실시하여 천년송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지리산 천년송 당산산신제'는 임진왜란 전부터 500여년 넘게 마을사람들이 마을의 당산목인 할배소나무와 할배소나무(천연기념물 424호)에게 당산제를 지내온 것으로서, 매년 음력 1월 10일 외운마을 천년송 일원에서 지내오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경찰서 치안설명회 가져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 운수과파출소는, 20일 임실읍의 조항마을을 방문하여 문인순찰과 함께 치안설명회를 열었다. 주민들에게 2018년 치안활동 전개방향,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홍보와 더불어 어르신 교통사고와 보이스피싱 등 예방법, 가정폭력 피해 대응요령 등에 대해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본격 채취

2월 초순부터 4월 초까지 이상적 조건 형성



'지리산남원 뱀사골 고로쇠 영농조합' 법인(대표 주기용)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부터 고로쇠 수액 채취를 위한 라인 작업을 마무리 하고, 2월 초순부터 4월 초까지 채취될 전망이다.

뱀에 이로운 물(甕利水)이라 하여 칭여어진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의 본격적인 채취가 시작되었다.

'지리산남원 뱀사골 고로쇠 영농조합' 법인(대표 주기용)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부터 고로쇠 수액 채취를 위한 라인 작업을 마무리 하고, 2월 초순부터 4월 초까지 채취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잦은 이상기후로 인해 낮과 밤의 일교차가 예년보다 커 고로쇠 채취에는 이상적 조건이 형성되어 수액채취에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고로쇠 약수 채취는 우수를 전후해 해발 600m이상인 뱀사골 인근에 서식하는 지름20cm이상의 고로쇠나무 7만여 그루에서 채취하는데 해풍이 미치지 않는 지역 특성상 전국 최고의 품질로 각광 받고 있다.

지난해 고로쇠 채취기간 동안 150여 농가가 10억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린 바 있다.

고지대에서만 생산되는 지리산 고로쇠는 수질이 뛰어나고 단맛이 강하다. 뱀에 좋아 '뱀리수'로 불리는 고로쇠

는 이노와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리산 고로쇠약수는 고지대인 뱀사골, 반야봉 일원이 고로쇠나무의 군락지로 형성되어 고로쇠약수의 원산지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공기와 물이 많

고 토질이 좋아 맛이 달콤하면서 향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제30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약수축제는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 산내면 뱀사골(반산 주차장)에서 개최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120만원봉사대 발대식 가져

"행정의 서비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남원시 120만원봉사대는 20일 김광채 시민소통실장을 비롯한 19명의 대원이 참여 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산동면 목동마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행정에 돌입했다.

발대식에 참여한 시민소통실장은 "소외계층에게 가사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120만원봉사대의 귀한 손길로 사랑의 열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120 봉사대는 6개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하여 매주 화·목요일 1개 마을씩 60개 마을을 순회해 소외계층의 전기, 가스 안전점검과 수도시설을 정비한다.

또, 미용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

들에게 미용 봉사를 함께하여 2017년 도에는 60개마을 525세대에 2,400건의 전기 등을 정비하여 주민건강증진 및 노후시설을 교체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한편, 120만원봉사대는 희망과 나눔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열어가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기·보일러·가스·문고리 보수·수도 등 자체수리 능력이 없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광채 시민소통실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만족해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적극추진을 할 계획임을 밝히고, 노약자나 소외계층의 시민께서 생활에 불편이 있다면 남원시 120만원봉사대 전화(063-120-5, 핸드폰 063-6262-120)로 연락할 것을 당부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학산입지
 063-430-2951